

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
'진심대면-한 사람을 위한 예술'

심 의 총 평

- '한 사람을 위한 예술'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을 생각하고,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프로젝트임.
- 첫 사업에 응모한 개인/단체 지원자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접근한다는 것의 의미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제안하였음. 다만 문화소외계층 위주로 활동영역을 잡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. 향후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환류평가를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술적 개입을 시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- 11개 시군에 국한되어 진행된 올해 사업을 잘 모니터링하며, 지역 언론과의 협업 작업을 통해 대중적 의미화를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-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은 왜 존재하는가,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, 향후 더 좋은 활동들이 많아지기를 바람.

2020. 11. 3. (화)

심의위원장 계명국

고영직

김선형

송창진

우현정